중형 SUV 다시 달린다

8월 판매량 지난해보다 28% 늘어…기아 쏘렌토·현대차 싼타페 등 인기·쌍용차 토레스 신차 효과

주춤했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제2의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꼽히는 중형 SUV의 판매가 지난달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어서다.

기아 쏘렌토와 현대차 싼타페를 비롯한 '스테디셀러'의 인기가 꾸준한 데다, 쌍용차가 7년 만에 내놓은 신차 토레스가 돌풍을 일으킨 효과로 보인다. 여기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가 SUV 신차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돼 중형 SUV를 비롯한 SUV 모델들의 인기는 하반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형 SUV 내수 판매량은 1만723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497대)보다 27.7% 증가했다.

이는 현대차의 싼타페와 수소전기차 넥쏘, 기아 쏘렌토, 제네시스 GV70, 한국GM 이쿼녹스, 르노코리아차 QM6, 쌍용차 토레스 등 7개 차종의 판매량을 합한 수치다.

월간 내수 기준으로 국내 중형 SUV 판매량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특히 쌍용차의 토레스가 지난달 3637대 팔리면서 시장 규모를 키웠다. 토레스는 지난 7월 출시된 이후 두 달 만에 계약 대수가 6만대를 넘으면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는 추석 연휴에 생산시설을 정비해 올해 안에 2만5000대를 팔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잘나가는 중형 SUV는 기아의 쏘렌토다.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쏘렌토 내수 판매량 5674대 중 하이브리드가 전체 판매량의 66%인 3752대에 달할 정도다.

싼타페도 8월 내수 판매량 2534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82대가 하이브리드였다.

QM6와 GV70은 지난달에 각각 2196대, 2004대가 판매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형 SUV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반도체 품귀현상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출시 차종 가운데 대기 기간이 가장 긴 모델은 싼타페 하이브리드로 무려 2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정도다.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쌍용차가 얼마나 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지도 중형 SUV 시장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토레스 양산도 그만큼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도 SUV 신차 모델을 내세워 명예 회복을 벼르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SUV 성장이 예고된다.

올해 내수 판매량 2만5258대로 전년 대비 41.0%나 감소한 한국지엠은 올 하반기 SUV와 픽업 등 대형 RV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최근 공개한 GMC 브랜드 풀사이즈 픽업트럭 '시에라 드날리'의 국내 도입을 준비 중으로, 시에라는 국내 처음 선보이는 GMC 브랜드 차종이다.

르노코리아 역시 소형 SUV 모델 XM3의 하이브리드(HEV)를 내세워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르노코리아는 XM3 하이브리드가 현재 판매 중인 XM3의 파생 모델이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차 못지 않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르노코리아는 기대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월드랠리팀 1~3위 석권 현대자동차는 지난 8일부터 11일(현지 시각)까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Acropolis)에서 열린 '2022 월드랠리챔피언십'(World Rally Championship) 시즌 열 번째 대회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참가 선수 전원이 1·2·3위를 차지하는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 월드랠리팀 드라이버 티에리 누빌(오른쪽)과 코드라이버 마틴 뷔데게(왼쪽)가 우승을 한 차량 위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KT '모빌리티 동맹' 7500억 규모 지분 맞교환 한다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와 KT가 6세대 이동통신(6G) 자율주행 기술과 위성통신 기반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통신망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기로 했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 KT의 주식 1201만1143주를 약 44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후 지분율은 4.7%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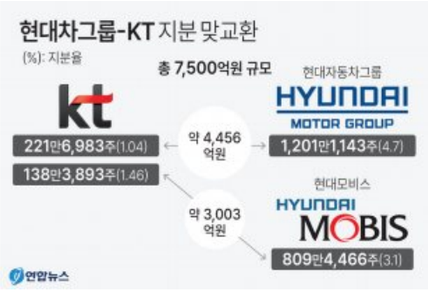
현대모비스도 주식 809만4466주를 약 3003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3.1%로 높아진다.

이에 상응해 KT는 현대차 주식 221만6983주를 약 4456억원에, 현대모비스 주식 138만3893주를 약 3003억원에 각각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1.04%, 1.46%로 상승한다.

현대차그룹이 7459억원 상당의 KT 지분을, KT는 같은 액수의 현대차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이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KT와 미래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6G 통신규격을 공동 개발해 차세대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는 차량의 연결성 증가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통신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차그룹과 KT는 실증사업 및 선행 공동연구를 통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욱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6G 통신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의 최대 50배에 달한다. 초 단위 이하 실시간 정보 수집 등 초대용량의 데이터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AAM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과 KT는 인공위성 기반의 AAM 통신 인프라 마련에도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기체 개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 건설 등의 역할을 맡고, KT는 자체 통신위성과 연계해 AAM 운항에 필수적인 관제 및 통신망 등을 구축한다.

장기적인 선행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제휴 영역도 확장한다. 먼저 전국 각지의 KT 부지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EV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KT 부지는 접근성이 높아 충전 생태계 조기 구축 및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넥티드카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유료 방송 가입자 1위 KT가 보유한 양질의 콘텐츠 수급,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차량과 모바일 데이터 연동 등을 통해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사업도 발굴한다. 빅데이터 등 ICT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미래기술펀드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미래 사업 확장에 필수적인 보안 통신 모듈 분야 기술 협업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KT 미래형 신사옥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실증 운행 사업도 진행한다.

이밖에 KT 사업 영역에서 수소연료전지 단계적 활용 확대, KT 영업용 차량 EV 전환, RE100(Renewable Energy 100) 공동 대응 등 ESG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그룹과 KT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로 특히 미래 EV 커넥티드카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 제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됐으며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리딩하고 글로벌 테크컴퍼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사회공헌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장 토마스 클라인)는 한국을 찾은 베티나 페처(Bettina Fetzer) 메르세데스-벤츠 AG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총괄과 함께 최근 서울 삼전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지난 4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아이들과미래재단이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이어오고 있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하나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키즈는 독일 본사가 2001년 개발한 이래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 200여만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4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3만명 이상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서울시와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도로교통공단과의 어린이 교통공원 개보수 프로젝트, 안심 학교 담벼락 벽화봉사활동, 플레이더세이프티 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베티나 페처 총괄은 "짧은 방한 일정 중 한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모바일키즈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캠페인의 진원지인 독일보다 더욱 활발하게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펼치는 부분은 본사에서도 참고하고 배울 부분이다"고 평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첫 레벨 3 자율주행차 나온다

현대차, 4분기 출시 제네시스 G90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 탑재

오는 4분기 국내에 첫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대형 세단 G90 연식 변경 모델에 고속도로 자율주행(HDP·Highway Driving Pilot) 기능을 탑재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HDP 기능이 적용된 차량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HDP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0~5단계까지 중 레벨 3에 해당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60㎞/h까지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HDP는 주행할 때 교통 신호와 도로 흐름을 스스로 인식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차간 거리나 차로를 자동으로 유지해준다.

운전자는 기능 고장이나 한계 상황 등 비상시에만 개입해 운전대를 잡으면 된다.

현재 HDP와 같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일본 혼다의 일부 모델에 탑재됐다. 레벨 3보다 단계가 낮은 레벨 1~2가 반자율주행 자동차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적용 차량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HDP가 탑재된 G90은 진정한 의미의 첫 국내 자율주행차가 된다.

같은 현대차그룹의 기아도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두 번째 전용 전기차 EV9에 HDP를 탑재할 계획이다. EV9에 탑재된 HDP의 제한속도도 80km/h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에 더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RPCA) 등 지능형 안전·주행 보조 기술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연평균 4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레벨3 G90 출시는 국내 자율주행산업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네시스 GV60 '최고 안전성'

유럽 자동차 평가 인증기관

제네시스는 GV60이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지난 6월부터 유럽에서 GV60을 판매하고 있다. 이로써 제네시스는 G70, G70 슈팅 브레이크, G80, GV70, GV80 등 유로 NCAP 평가를 받은 모든 모델이 별 다섯 개 등급을 받게 됐다.

유로 NCAP는 1997년 시작된 신차 평가 프로그램이다.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GV60은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4개 평가 항목의 종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유로 NCAP는 GV60이 정면과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승객 공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성인 및 어린이 탑승자의 주요 신체를 잘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 독거노인에 '情 선물 꾸러미'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지난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한 후원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당일 광주시 남구청에서 진행된 후원행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강명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박래석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장이 참석했다.

광주시 남구청에서 진행된 정(情)나누기 후원 행사에서 박래석(왼쪽 첫번째) 공장장이 김병내(가운데) 남구청장과 강명관 사무처장에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 제공〉

이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할 '정(情)나누기 꾸러미' 제작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정 나누기 꾸러미'는 상차림 세트, 쌀, 한과, 김치로 구성됐으며, 남구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가정 100세대에 전달됐다.

기아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자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9년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